

#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정 석규(한영신대) 왕하 21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	30
<p>본 논문은 므낫세의 죄를 다루는 왕하 21: 1-18을 본문 자체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과, 신명기적 역사에 나타난 므낫세의 죄와 연관되는 다른 왕들의 죄 또는 개혁과 비교함으로써 본문의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므낫세의 죄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남유다의 왕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유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p>	
Jung, Seokgyu Dual Functions of Manasseh's Sin (2 Kings 21: 1-18)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	30

---

## 왕하 21장의 구조 분석적 해석

---

정 석규 | 한영신대

### 1. 들어가는 글

신명기적 역사<sup>1)</sup>에서 므낫세의 죄는 남 유다 멸망의 이유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왕하 21: 10-15; 23: 26-27; 24: 2-4), 요시아의 의로운 행적을 무효화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이해된다(왕하 23: 25-27). 많은 학자들은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언급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을 므낫세를 희생양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포로 시기의 신명기적 역사가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므낫세의 죄에 대한 언급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왕하 21장 10-15절은 현재 형태의 텍스트에서 므낫세의 통치를 다루는 왕하 21장 1-18절에 포함된다. 므낫세의 통치를 다루는 왕하 21장 1-18절은 통시적인 측면에서 신명기적 역사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

1) '신명기적 역사(The Deuteronomistic History)'라는 용어는 노트(Noth)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1943). 신명기적 역사 연구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이 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년 9월), 67-86쪽.

2) St. L. McKenzie, *The Trouble with Kings: The Composition of the Books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Sup 42), (Leiden: E. J. Brill, 1991), 142-43쪽에 있는 overview를 참조하라.

다. 많은 학자들은 왕하 21장 1-18절에 있는 구문론적인 불일치와 용어들의 반복 등에 근거하여 그 안에 있는 포로기 편집자의 작업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크로스(F. M. Cross)는 왕하 21장 2-15절을, 넬슨(R. D. Nelson)은 왕하 21장 3c-15절을, 프리드만(R. E. Friedman)은 왕하 21장 8-15절을, 오브라이언(M. A. O'Brien)은 왕하 21장 2-7, 10-14절을, 맥킨지(St. L. McKenzie)는 왕하 21장 6, 8-15절을, 그리고 스위니(M. A. Sweeney)는 왕하 21장 6b, 8-15, 16b를 포로 시기 편집자의 작품으로 이해한다.<sup>3)</sup>

이러한 통시적인 연구들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신명기적 역사의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통시적 영역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통시적 영역 보다는 공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대면하는 텍스트가 이전의 가설적 단계의 자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형성된 형태라는 당위성 때문이다. 본 논문은 최종 형태의 텍스트를 통하여 편집의 단계를 재구성하거나, 므낫세에 대한 신명기적 역사의 기록과 성서의 다른 부분들(대하 33장, 렘 7장 등)의 관계, 그리고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서의 해석된 기록 사이의 관계 등을 다루지 않는다.<sup>4)</sup> 본 논문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는 왕하 21장 1-18절을 텍스트의 구조

3) F. M. Cross,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der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85-86쪽; R. D. Nelson,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65-69쪽; R. E. Friedman, *The Exile and Biblical Narrative: The Formation of the Deuteronomistic and Priestly Works* (HSM 22),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1), 10-11쪽; M. A. O'Brie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234쪽; McKenzie, *윗글*, 143쪽; M. 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1-63쪽.

4) 므낫세의 역사적 이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정 중호, "므낫세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호 (1999), 213-33쪽;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열왕기하 16-23장 주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89-110쪽; E. A. Knauf, "The Glorious Days of Manasseh," L.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164-88쪽; F. Stavrakopoulou, "The Blackballing of Manasseh," L.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248-63쪽. 스타브라코풀로(Stavrakopoulou)는 위의 글에서 므낫세가 역사적으로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남 유다의 왕이지만 신명기적 역사에서 왕국의 포로와 멸망에 대한 이유로 비난받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북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와 신명기적 역사라는 문맥 가운데 공시적으로 분석함으로 최종 형태의 텍스트의 신학적 의도와 기능을 밝히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왕하 21장 1-18절을 구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주석 하는 것이다(참조 §2). 이를 통하여 텍스트의 최종 형태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의 문학적 단위라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짜임새 속에서 텍스트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둘째는, 최종 형태의 텍스트가 강조하는 므낫세의 죄악을 본문이 직접 언급하는 이합의 죄와 사마리아의 멸망(왕하 21: 3, 13)과 비교함으로써,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왕하 3장). 셋째는, 므낫세의 죄악을 본문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히스기야의 개혁(왕하 21: 3; 참조 왕하 18-20장)과 근접한 문맥을 통하여 연관되는 요시아의 개혁(왕하 22-23장)과 비교함으로써, 남 유다와의 관계에서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의 신학적 의도를 밝힌다(왕하 4장). 이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가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남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인간의 책임(므낫세와 남 유다 백성)을 강조하고, 남 유다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 2. 왕하 21장 1-18절의 구조 분석적 해석<sup>5)</sup>

왕하 21장 1-18절은 히스기야의 통치를 다루는 앞 단락(왕하 18: 1 - 20: 21)과 아몬의 통치를 다루는 뒤의 단락(왕하 21: 19-26)과는 달리 므낫세의 통치만을 다룬다. 본문은 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론적 언급(왕하 21: 1; 참조 18: 1-2; 21: 19; 22: 1; 23: 31, 36; 24: 8 등)으로 시작하여, 그의 남은 사적과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결론적 언급(왕하 21: 17-18; 참조 왕하 20: 20-21; 21: 25-26; 23: 28-30 등)으로 마무리되는 신명기적 역사의 전형적인 형식 속에서 묘사된다. 이러한 테두리(*inclusio*) 안에 므낫세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전후 문맥과 구분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정당한 문학적 단락이다.

이 단락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도표로 이해될 수 있다.<sup>6)</sup>

5) 구조분석 방법과 실제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정 석규, 「구조로 읽는 구약성서: 구조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6) 왕하 21: 1-18의 구조의 또 다른 이해들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정 중호, 윗글, 215-17쪽; Sweeney, 윗글, 54-57쪽; B. O. Long, *2 Kings* (FOTL 10), (Grand Rapids, MI: Wm.

- I. 왕의 통치에 대한 서론적 언급(21: 1)
  - A. 므낫세의 왕위 등극과 통치 기간(21: 1a)
  - B. 므낫세의 어머니의 신원(21: 1b)
- II.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평가(21: 2-16)
  - A.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설명(21: 2-9)
    - 1.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서론적 설명: 이방의 악행을 따름(21: 2)
    - 2.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21: 3-7)
      - a.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제1: 일반적(21: 3)
        - 1) 산당을 다시 건설함: 히스기야가 헐었던 것(21: 3a)
        - 2)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듦: 아합의 행위를 따라(21: 3ba)
        - 3)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섬김(21: 3bβ-y)
      - b(a').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제2: 성전과 연관(21: 4-7)
        - 1) 야웨의 이름을 두실 성전에 산당을 건설함(21: 4)
        - 2) 성전 마당에 일월성신의 제단을 건설함(21: 5)
        - 3)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술을 행함(21: 6)
        - 4-1') 야웨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성전에 아세라 상을 세움(21: 7)
    - 3(1').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결론적 언급(21: 8-9)
      - a. 이전에 주어진 야웨의 약속(21: 8)
        - 1) 귀결절: 약속의 땅에서 유리하지 아니하리라(21: 8a)
        - 2) 조건절: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21: 8b)
      - b. 백성들의 반응: 듣지 않음(21: 9a)
      - c. 므낫세가 백성들이 피어 악을 행하게 함: 이방보다 큰 악(21: 9b)
  - B.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됨(21: 10-15)
    - 1. 이야기 서론부: 야웨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심(21: 10)
    - 2. 말씀 자체(21: 11-15)
      - a. 야웨의 심판의 원인: 므낫세의 악행(21: 11)
        - 1) 가증한 일을 행함(21: 11aα)
        - 2) 아모리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함(21: 11aβ)
        - 3) 유다로 죄를 짓게 함(21: 11b)
      - b.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 야웨의 심판 선언(21: 12-14)
        - 1) 메신저 형식(21: 12aa)
          - 2) 야웨의 심판 선언(21: 12aβ-14)
            - a) 일반적 표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심(21: 12aβ-b)
            - b) 구체적 표현(21: 13-14)
              - (1)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21: 13)
                - (a) 북이스라엘의 잣대를 예루살렘에 베풀(21: 13a)
                - (b-a') 예루살렘을 찢어 버림(21: 13b)
              - (2)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21: 14)
                - (a) 유다 백성들을 버려 원수의 손에 넘김(21: 14a)
                - (b-a') 유다의 백성들이 원수의 먹이가 될 것임(21: 14b)
          - c(a'). 야웨의 심판의 원인: 백성들의 악행(21: 15)
    - C(A'). 므낫세의 추가적인 악행에 설명: 사회적인 죄(21: 16)
  - III(I'). 왕의 통치에 대한 결론적 언급(21: 17-18)
    - A. 므낫세의 남은 행적의 기록: 유다 왕 역대지략(21: 17)
    - B. 므낫세의 죽음과 아몬의 계승(21: 18)

본문의 첫째 대 문단(왕하 21: 1)은 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서론적 언급을 다룬다. 이 대 문단은 므낫세를 주어로 하여 그의 등극의 시기와

B. Eerdmans Pub., 1991), 246-49쪽.

통치 기간을 언급하는 첫째 소 문단(왕하 21: 1a)과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둘째 소 문단(왕하 21: 1b)으로 짜여진다. 이 대 문단에서 므낫세는 십 이세에 왕위에 등극했으며, 55년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고 언급된다.

첫째 대 문단과 대응이 되는 셋째 대 문단(왕하 21: 17-18)은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죽음을 결론적으로 언급한다. 이 대 문단은 므낫세의 남은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첫째 소 문단(왕하 21: 17)과 므낫세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계승을 다루는 둘째 소 문단(왕하 21: 18)으로 짜여진다. 첫째 소 문단에서 므낫세는, 단순히 남은 행적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언급되는 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참조 왕하 20: 20; 21: 25; 23: 28 등),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언급된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므낫세의 통치가 기본적으로 죄악과 연관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소 문단은 다른 유다의 왕들처럼(참조 왕하 20: 21; 21: 26; 23: 30 등) 왕의 죽음과 장례(왕하 21: 18a),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음을 언급하는 전형적인 결론 문구를 다룬다(왕하 21: 18b).

왕에 대한 통치를 다루는 전형적인 서언(왕하 21: 1)과 결론(왕하 21: 17-18)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둘째 대 문단(왕하 21: 2-16)이 놓인다. 이 대 문단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다루는 첫째 소 문단(왕하 21: 2-9)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다루는 둘째 소 문단(왕하 21: 10-15), 그리고 므낫세의 추가적인 악행에 대하여 언급하는 셋째 소 문단(왕하 21: 16)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첫째 소 문단과 셋째 소 문단은 므낫세의 악행을 다루는 주제적 유사성에 의해 서로 대응된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다루는 첫째 소 문단(왕하 21: 2-9)은 서론적 설명을 다루는 첫째 큰 단위(왕하 21: 2)와 결론적 설명을 다루는 셋째 큰 단위(왕하 21: 8-9)를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므낫세의 악행을 다루는 둘째 큰 단위(왕하 21: 3-7)가 놓인 형태로 배열된다. 대응이 되는 첫째 큰 단위와 셋째 큰 단위에는 '그 악'(רַע)과 "야웨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 .. 여러 민족"(יְהוָה מִפְּנֵי כָּל עַמֵּי אֲרָצוֹת)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된다(왕하 21: 2, 9). 즉 첫째 큰 단위(왕하 21: 2)에서 므낫세

의 행악은 '아웨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מַעֲשֵׂי)을 따른 것'(왕하 21: 2)으로 설명되고, 셋째 큰 단위(왕하 21: 8-9)에서 므낫세의 행악은 '아웨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묘사된다. 신명기적 역사에서 이러한 표현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되어 사용된다(왕하 17: 8). 그러므로 므낫세의 죄를 이방 민족과 비교하는 것은 므낫세의 행악으로 인하여, 남 유다도 멸망당한 북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큰 단위(왕하 21: 3-7)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룬다. 이 큰 단위는 므낫세의 악행을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첫째 작은 단위(왕하 21: 3)와 성전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다루는 둘째 작은 단위(왕하 21: 4-7)가 서로 병행된 형태로 짜여진다. 므낫세의 악행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묘사된다(왕하 21: 3). 첫째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מִזְבְּחֹת)을 다시 세운 것이고(왕하 21: 3a), 둘째는, 북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행위에 따라 바알(בַּעַל)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אַשְׁרָה) 목상을 만든 것이며(왕하 21: 3ba), 셋째는 일월성신(כְּלָל-צְבָא הַשָּׁמַיִם)을 경배하고 섬긴 것

7) 알스트림(Ahlström)은 산당(מִזְבְּחֹת)이 왕실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중심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경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한 중심지로 이해한다. G. W. Ahlström, *Roy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Religion in Ancient Palestine* (Leiden: E. J. Brill, 1982), 57-90쪽.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은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산당을 다시 세우는 므낫세의 행동은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졌던 중앙 집권화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T. R. Hobbs, *2 Kings* (WBC 13), (Waco, Texas: Word Books, 1985), 305쪽.

8) 맥케이(McKay)는 앗수르가 그의 봉신국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은 앗수르의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적인 관행이 유다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참조: 신 7: 5; 12: 3 등). J. W. McKay,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SBT 26), (London: SCM Press, 1973), 21-27쪽. 고대 이스라엘의 아세라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S. M. Olyan, *Asherah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 (SBLM 34), (Atlanta: Scholars Press, 1988).

9)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관행은 렘 8: 2와 슥 1: 5 등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종교적 관행은 남 유다에서는 요시야 시대 이전에 널리 퍼졌고, 북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에 의해 도입된 것 같다. 이러한 종교적 관행은 신 4: 19와 17: 3 등에서 금해야할 배교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기원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스피케르만(Spieckermann)은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것을 앗수르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맥케이(McKay)와 코간(Cogan)은 앗수르의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227-372쪽; McKay, *윗글*, 32-35쪽; M.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SBLMS 19),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4). 테일러(Taylor)는 일월성신에 대한 경배가

이다(왕하 21: 3bβ-γ). 이러한 행위들은 신명기적 역사에서 아합의 죄(왕상 16: 32-33)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죄로 언급된다(왕하 17: 9-12, 16).

둘째 작은 단위(왕하 21: 4-7)는 첫째 작은 단위(왕하 21: 3)에서 언급한 므낫세의 악행을 성전과 연결시켜 구체화한다. 이 단위는 '성전에'(בבית), '예루살렘에'(בירושלם),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두리랴'(אני אתרשם)이라는 용어와 문장이 반복되는 테두리(왕하 21: 4, 7) 안에서 표현됨으로 이 단위가 성전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전과 관련하여 므낫세의 악행은 첫째로 성전에 산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왕하 21: 4). 이 성전은 야웨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셨던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보충 설명된다. 둘째는 성전 두 마당에 일월성신의 제단을 건설하는 것으로 언급된다(왕하 21: 5).<sup>10)</sup> 셋째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술을 행하는 것이다(왕하 21: 6; 참조 왕하 16: 3; 17: 17 신 18: 9-14). 최종 형태의 텍스트에서 이 행위는 성전과 연결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왕하 23장 10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이 제거한 이 행위가 '히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한 것이라고 언급된다. 히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외곽 지역에 위치하므로, 이 내용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이다(왕하 21: 7). 이 부분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은 야웨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둘 장소로 주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셋째 큰 단위(왕하 21: 8-9)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언급한다. 이 큰 단위는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 개의 작은 단위가 선형 구조로 배열된 형태로 짜여진다. 첫째 작은 단위(왕하 21: 8)는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언급한다. 이 작은 단위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귀결 구절(apodosis, 왕하 21: 8a)과 '만일 이스라엘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 절(protasis, 왕

---

이스라엘에 주전 10세기 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아웨 종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홉스(Hobbs)도 이것이 앗수르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전이나 가나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J. G. Taylor,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JSOTS 111), (Sheffield: JSOT Press, 1993), 257-264쪽; Hobbs, *윗글*, 305쪽.

10) 홉스는 본문에 "성전 두 마당"(왕하 21: 5)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성전과 궁궐에 있는 세 개의 뜰(위, 중간, 바깥) 가운데 단지 두 개가 바알 예배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저자가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Hobbs, *윗글*, 306쪽.

하 21: 8b)로 구성된다. 둘째 작은 단위(왕하 21: 9a)는 야웨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다루며, 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의 명령과 율법을 듣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작은 단위(왕하 21: 9b)는 므낫세가 백성들을 피어 야웨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했음을 언급한다. 이 큰 단위(왕하 21: 8-9)는 점층적인 단계를 표현하는 형태의 세 개의 작은 단위들이 선형 구조로 배열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뒤에 놓인 셋째 작은 단위(왕하 21: 9b), 즉 므낫세가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끈 내용이 강조된다.

므낫세의 죄를 다룬다는 면에서 첫째 소 문단(왕하 21: 2-9)과 대응이 되는 셋째 소 문단(왕하 21: 16)은 므낫세의 추가적인 악행을 다룬다. 이 죄악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사회적인 죄로 묘사된다.<sup>11)</sup> 이 악행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라고 설명됨으로, 이 악행이 앞에서 언급한 죄악들(참조 왕하 21: 2, 6, 15) 외의 추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므낫세의 죄를 다루는 첫째와 셋째 소 문단의 테두리(왕하 21: 2-9, 16) 안에 배열된 둘째 소 문단(왕하 21: 10-15)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야웨의 심판의 말씀을 다룬다. 이 소 문단은 야웨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서론부인 첫째 큰 단위(왕하 21: 10)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야웨의 말씀 자체를 다루는 둘째 큰 단위(왕하 21: 11-15)로 구성된다. 둘째 큰 단위는 야웨의 심판의 원인을 다루는 첫째와 셋째 작은 단위들(왕하 21: 11, 15)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로 주어진 야웨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둘째 작은 단위(왕하 21: 12-14)가 놓인 형태로 배열된다. 여기서 테두리를 이루는 첫째와 셋째 작은 단위들(왕하 21: 11, 15)은 모두 “그/그들이 행했기 때문에”(לְכַלּוֹתָם לְפָנָי)라는 동일한 문구로 시작됨으로 이 단위들이 모두 심판의 원인을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큰 단위(왕하 21: 11-15)의 첫째 작은 단위(왕하 21: 11)는 ‘왜냐하면’(לְכַלּוֹתָם)이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야웨의 심판의 원인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므낫세의 악행은 세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는 므낫세가 가증한 일(רַבָּה י)을 행한 것이고(왕하 21: 11a), 둘째는 아

11) 므낫세의 사회적인 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에 잘 설명된다. 한 동구, 윗글, 105-08쪽.  
 12) 신 18: 9-14는 ‘가증한 일’(רַבָּה י)이라는 용어의 3번 반복을 통하여, 이 부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야 할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모리 사람들의 악행<sup>13)</sup>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한 것이며(왕하 21: 11aβ), 셋째는 유다로 하여금 범죄 하도록 한 것이다(왕하 21: 11b).

첫째 작은 단위(왕하 21: 11)와 병행되는 셋째 작은 단위(왕하 21: 15)도 '왜냐하면'( **כִּי** **וְ**)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되며, 아웨의 심판의 원인을 다룬다. 그러나 첫째 작은 단위는 아웨의 심판의 원인으로 므낫세의 악을 아모리 사람의 행악과 비교함으로써 묘사하지만, 셋째 작은 단위는 아웨의 심판의 원인을 출애굽 때부터 지속된 백성들의 악으로 설명한다. 즉 심판의 원인은 구체적인 한 인물인 므낫세의 죄에서(왕하 21: 11) 백성들 전체의 죄로 진행되고(왕하 21: 15), 한 이방 민족인 아모리 사람과의 행악과 비교되는 죄에서(왕하 21: 11)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죄로(왕하 21: 15) 확장된다. 이러한 죄가 결국 아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들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아웨의 심판의 말씀을 다루는 둘째 작은 단위(왕하 21: 12-14)가 배열된다. 이 작은 단위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 **לָכֵן**)와 함께 시작됨으로, 이 작은 단위가 므낫세의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음을 드러낸다. 접속사 '그러므로'에 이어서 메신저 형식(왕하 21: 12aa)이 나타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웨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한다. 메신저 형식 이후에 아웨의 심판 선언의 말씀(왕하 21: 12aβ-14)이 나온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일반적 표현(왕하 21: 12aβ-b)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왕하 21: 13-14)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표현(왕하 21: 12aβ-b)은 강조어 "히네"( **הִנֵּה**)와 함께 시작되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씀으로 마감됨으로 아웨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서 아웨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타난다. 아웨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왕하 21: 13)과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왕하 21: 14)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각각의 심판의 말씀은 두 개의 병행되는 문장을 통하여 표현된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왕하 21: 13)은 사

다.

13) '아모리 사람들'( **אֲמֹרִי**)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이전에 가나안에 거주했던 민족들 가운데 하나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말하는 전형적인 예로 나오며, 그들은 이러한 우상숭배로 인해 결국 아웨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참조, 창 15: 16; 출 23: 23-24; 33: 2; 34: 11; 신 32: 7; 7: 10; 24: 8-18 등). '아모리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G. E. Mendenhall, "Amorite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199-202쪽.

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대한 다림 보던 추가 예루살렘에도 임하고(왕하 21: 13a),<sup>14)</sup> 그릇을 씻어 버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린다(왕하 21: 13b)는 은유적 표현들로 설명된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왕하 21: 14)은 야웨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고(왕하 21: 14a),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된다(왕하 21: 14b)고 묘사된다. 이 두 문장에는 “그들의 원수”(מְרִיבָאֵם)라는 용어가 반복된다.

요약하면, 본문은 열왕기에 나타난 전형적인 형태인 왕의 통치에 대한 서론(왕하 21: 1)과 결론(왕하 21: 17-18)이라는 형식을 테두리(*inclusio*)로 하여, 그 중앙에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평가(왕하 21: 2-16)가 놓인 형태로 배열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본문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텍스트만이 갖는 독특한 구조로 짜여진다. 이 부분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설명(왕하 21: 2-9)과 악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왕하 21: 16)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왕하 21: 10-15)이 배열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구조적으로 강조된다. 야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서론 부분(왕하 21: 10)과 말씀 자체(왕하 21: 11-15)로 구성된다. 야웨의 심판의 말씀 자체는 심판의 원인(왕하 21: 11, 15)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야웨의 심판의 선언(왕하 21: 12-14)이 놓인 형태로 배열된다. 이러한 동심원 구조 속에서 야웨의 심판 선언은 중앙에 배열됨으로 가장 강조된다. 즉 야웨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은 구조적으로 가장 강조된다.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것을 에워싸는 테두리(왕하 21: 11, 15)를 통해 그 원인으로 므낫세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언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므낫세의 죄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왕하 21: 10-15)을 에워싸는 더 큰 테두리(왕하 21: 2-9, 16)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겹겹이 쌓인 므낫세의 죄(왕하 21: 2-9(a), 11(b), 15(b’), 16(a’))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왕하 21: 12-14)으로 집중된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동심원적 움직임은 본문을 하나

14) 북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다림 보던 추”라는 이미지로 사용한 것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과 연관된다(암 7: 7-8). 본문에서 사용된 “다림 보던 추”(לְמַשְׁכָּה)와 아모스서에서 사용된 “다림줄”(לְמַשְׁכָּה)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다 사마리아에 임한 심판에 대한 은유로 표현되고 있다(참조, 사 28: 17).

의 문학적 단락으로 응집할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죄로 인해 야웨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

### 3.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므낫세의 죄의 신학적 기능

위에서 언급한 구조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본문 전체를 응집하며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야웨의 심판 선언(왕하 21: 12-14)이다. 이 심판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북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집에 선포되었던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된다(왕하 21: 13). 그러므로 본문은 남 유다의 멸망의 원인인 므낫세의 죄를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 즉 사마리아의 멸망을 야기한 죄와 아합의 죄와 연관하여 이해하길 요청한다. 므낫세의 죄악을 사마리아와 아합,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에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으로 언급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참조 왕하 17: 21-23)의 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죄의 목록	므낫세 (왕하 21장)	아합 (왕상 16, 21장)	사마리아 (왕하 17장)	여로보암 (왕상2-14장)
산당	21: 3		17: 9, 11	12: 31
바알(의 제단)	21: 3, 4	16: 31-32	17: 16	
아세라(의 제단)	21: 3, 7	16: 33	17: 10, 16	
일월성신(의 제단)	21: 3, 5		17: 16	
우상을 섬김	21: 11		17: 12	
아들을 불 가운데로/ 점, 사술, 신접한 자, 박수	21: 6		17: 17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	21: 8		17: 13-15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죄)	21: 2, 9, 11		17: 8, 11, 15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	21: 9, 11, 16	21: 22	(17: 21)	14: 16
야웨의 진노를 일으킴	21: 6, 15	16: 33; 21: 22	17: 11, 17-8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21: 16 (24: 4)	21: 1-16 (나봇의포도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21: 16 (24: 4)	21: 1-16 (나봇의포도원)		
아모리인의 죄	21: 11	21: 26		
야웨 보시기에 악을 행함	21: 2, 6, 15, 16	16: 30; 21: 25	17: 17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 최종 형태의 텍스트(왕하 21: 1-18)에서 므낫세의 죄는 여로보암보다는 아합과 사마리아의 죄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다.<sup>15)</sup> 여로보암의 죄는 므낫세의 죄와 비교할 때, 산당을 세운 것(왕상 12: 31)과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끈 것(왕상 14: 16)<sup>16)</sup>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신명기적 역사에서 여로보암의 죄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웨의 전 외에 다른 곳, 즉 벰엘과 단에 전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둔 행위,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 구약의 주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7월 15일, 참조. 레 23: 34-36)과 비슷한 절기로 8월 15일을 정한 것으로 묘사된다(왕상 12: 25-33).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는 근본적으로 제의의 중앙화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전을 세운 것이나, 중앙 성소가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sup>17)</sup> 비(非) 레위 계 제사장을 세우는 것, 초막절의 날짜를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이전의 제도들과 전통을 파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므낫세의 죄는 제의의 중앙화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한 것과 연관된다. 므낫세가 이방의 우상을 섬긴

15) 본문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므낫세의 죄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비교하지 않고 아합의 죄와 비교하는 것은 신명기적 역사에 대한 통시적 이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와 연결한 것은 포로기 이전의 편집자(Dtr1)의 작업이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므낫세의 죄와 연결한 것은 포로기의 편집자(Dtr2)의 작업이라는 것이다. 신명기적 역사의 이중편집 이론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Cross, 윗글, 274-89쪽. Nelson, 윗글.

16) 왕상 14: 16과 왕하 21: 16에는 모두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목적으로 갖는 “하타”(חַטָּה) 동사의 히필(*hiphil*)형태로 표현된다. 즉 ‘여로보암 또는 므낫세가 이스라엘 또는 유다가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다’고 묘사된다.

17) 프로반(Provan)에 따르면, 신명기적 역사의 포로이전 편집자(Dtr1)는 산당(מִזְבְּחֵי)에 대한 본문을 제의의 중앙화와 관련하여 언급하였고, 포로기 편집자(Dtr2)는 산당에 대한 본문을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I. Provan, *Hezekiah in the book of Kings* (BZAW 172), (Berlin: de Gruyter, 1988), 57-90쪽.

것(왕하 21: 11)은 산당을 세운 것,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성신을 섬긴 죄(왕하 21: 3), 그러한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성전에 만든 것(왕하 21: 4-5, 7)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한 것(왕하 21: 2, 11)은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며, 점치고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용납한 것(왕하 21: 6)과 이방 민족과 아모리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왕하 21: 9, 11)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는 신명기적 역사에서 여로보암보다는 아합의 죄와 더욱 연관된다.<sup>18)</sup> 아합의 죄는 왕상 16장 31-33절과 21장 25-26절에 잘 묘사된다. 아합은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를 만들었다(왕하 16: 31-33). 그리고 아모리 사람처럼 우상에게 복종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왕하 21: 25-26). 이러한 죄는 모두 시돈 출신의 이방 아내인 이세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며(왕하 16: 31; 21: 25),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한 것으로 평가된다(왕하 16: 31). 이러한 아합의 죄는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왕하 21장에 묘사된 므낫세의 죄와 그 주제와 용어에 있어서 모두 반복된다. 그 외에도 "아웨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서론적 평가(왕상 16: 30; 왕하 21: 2), "네가...이스라엘(유다)을 범죄 하게 하였다."라는 설명(왕상 21: 22; 왕하 21: 11, 16), 그리고 "아웨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묘사(왕상 16: 33; 왕하 21: 6, 15)는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설명에서도 반복된다. 또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그를 죽인 사건(왕상 21: 1-16)과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왕하 21: 16)은 그 주제에 있어서 서로 병행된다. 이러한 주제와 어휘상 유사성들은 므낫세의 죄가 여로보암보다는 아합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sup>19)</sup>

또한 왕하 21장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사

18) 므낫세와 아합의 종교 사이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W. M. Schniedewind, "History and Interpretation: The Religion of Ahab and Manasseh in the Book of Kings," *CBQ* 55 (1993), 649-61쪽. 슈니드윈드는 이 글에서 아합과 므낫세의 기사에 나타난 문체상, 어휘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집상의 유사성들을 설명한다.

19) 아합과 므낫세 사이의 유사성은 그들이 회개하고 겸비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아합의 회개의 모습은 신명기적 역사에 나타나고(왕상 21: 27-29)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는 역대기적 역사에서 언급된다는(대하 33: 10-13) 차이가 있지만, 그 두 왕이 모두 아웨 앞에 죄를 지은 후에 회개했다는 면에서 그들에 대한 묘사는 서로 주제적 유사성을 지닌다.

마리아에 임한 심판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왕하 21: 13). 즉 왕하 21장은 유다 심판의 원인인 므낫세의 죄가 사마리아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므낫세의 죄와 사마리아의 멸망의 원인으로 언급된 죄(참조 왕하 17장) 사이의 연관성은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그 어휘와 주제에 있어서 드러난다. 므낫세의 죄(왕하 21장)에 예코되는 사마리아의 죄의 목록(왕하 17장)은 산당을 세운 것(왕하 17: 9, 11), 아세라를 세운 것(왕하 17: 10, 16), 바알과 일월성신을 섬긴 것(왕하 17: 16), 우상을 섬긴 것(왕하 17: 12),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한 것(왕하 17: 17), 이방 사람들에 따라 악을 행한 것(왕하 17: 8, 11, 15)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죄가 야웨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왕하 17: 17)이며, 이로 인해 야웨께서 진노하셨다(왕하 17: 11, 18)는 평가도 예코된다.

왕하 21장에 묘사된 므낫세의 죄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죄악들(왕하 17장)과 비교됨으로,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남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왕하 21장에서 므낫세를 아합(왕하 21: 3, 13)과 비교하는 것도 야웨의 심판을 정당화하는 본문의 기능을 드러낸다. 신명기적 역사에서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인물로 묘사된다(왕상 16: 31). 여로보암의 죄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는데,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아합을 따른 므낫세의 죄가 남 유다의 멸망을 가져올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왕하 21장에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더 심한 것으로 묘사한 것(왕하 21: 9, 11)도 남유다가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민족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예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학적 기능은 므낫세의 죄를 다루는 왕하 21장 1-18절이 구조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왕하 21: 10-15)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발견된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 야웨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신탁(왕하 21: 10-15)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텍스트에서도 예코된다.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주체가 특정한 예언자가 아니라 익명의 여러 예언자들이라고 표현되었듯이(왕하 21: 10), 왕하 17장 13절과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익명의 여러 예언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병행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므낫세의 죄에 대한 남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왕하 21장에 나타난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는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남 유다를 향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

#### 4. 남 유다의 관계에서 므낫세의 죄의 신학적 기능

왕하 21장 1-18절에서 므낫세의 죄는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마리아와 연관되어 언급되는 반면(왕하 21: 3, 13), 남 유다와의 관계에서는 므낫세의 직전 통치자인 히스기야와 대조적으로 연관되어 언급된다(왕하 21: 3). 즉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운 왕으로 묘사된다. 또한 비록 왕하 21장 1-18절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므낫세는 그의 통치 이후의 대표적 왕인 요시아와도 대조적으로 비교된다.

죄(개혁)의 목록	므낫세 (왕하 21장)	히스기야 (왕하 18장)	요시아 (왕하 22-23장)
산당 (제거)	21: 3	18: 4, 22	23: 5, 8, 13, 15, 19-20
바알 (제거)	21: 3, 4		23: 4-5
아세라 (제거)	21: 3, 7	18: 4	23: 4, 6-7, 14-15
일월성신 (제거)	21: 3, 5		23: 4-5, 11-12
우상을 섬김 (제거)	21: 11		23: 24
아들을 불 가운데로/ 점, 사술, 신접한 자, 박수 (제거)	21: 6		23: 10, 24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제거)	21: 2, 9, 11		23: 13
야웨 보시기에 악(정직)을 행함	21: 2, 6, 15, 16	18: 3	22: 2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 (순종)	21: 8	18: 6	23: 2-3, 25

왕하 22 - 23장에서 요시아는 므낫세의 죄악들을 제거하는 신앙적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왕하 21장 1-18절에 묘사된 므낫세의 죄 된 모습은 신명기적 역사 안에서 본문의 근접한 전후 문맥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한 왕들인 히스기야(왕하 18-20장)와 요시아(왕하 22-23장)의 개혁적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왕들 사이의 연관성은 위의 도표에 잘 나타난다.

히스기야 왕(왕하 18-20장)과 므낫세 왕(왕하 21장)은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으나(왕하 18: 4, 22),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세웠다(왕하 21: 3, 7).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서언에서 히스기야는 야웨 보시기에 정직하게(כִּשְׁרוּת) 행한 자로 묘사되나(왕하 18: 3), 므낫세는 야웨 보시기에 악(רַע)을 행한 자로 언급된다(왕하 21: 2, 6, 15, 16). 또한 히스기야는 모세의 계명을 지킨 자로 그려지나(왕하 18: 6), 므낫세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끈 자로 묘사된다(왕하 21: 7-9).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 ..”(왕하 19: 31)라는 약속의 말씀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인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 ..”(왕하 21: 14)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신명기적 역사에서 므낫세의 통치는 그의 선왕인 히스기야의 통치와 대조를 이루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무효화하였던 히스기야의 역 모델로 제시된다.

요시아 왕(왕하 22-23장)과 므낫세 왕도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 여러 측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 요시아는 므낫세가 세운 산당들을, 그것이 유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할지라도, 모두 제거하였다(왕하 23: 5, 8, 13, 15, 19-20; 참조. 21: 3). 요시아는 므낫세가 만들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일월성신을 제거하였고, 성전에 세운 우상들의 제단들을 모두 헐어 성전을 정화하였다(왕하 23: 4-7, 11-12, 14-15, 24; 참조. 21: 3-7, 11). 요시아는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을 금하였고,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점쟁이를 신임한 것을 모두 제거하였으며(왕하 23: 10, 24; 참조 21: 6), 므낫세가 행했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도 제거하였다(왕하 23: 13; 참조. 21: 2, 11).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서언에서 요시아는 야웨 보시기에 정직하게(כִּשְׁרוּת) 행한 자로

묘사되나(왕하 22: 2), 므낫세는 야웨 보시기에 악(רַע)을 행한 자로 언급된다(왕하 21: 2, 6, 15, 16). 또한 요시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그려지나(왕하 23: 2-3, 25), 므낫세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로 묘사된다(왕하 21: 7-9). 왕하 22 - 23장에서 요시아는 므낫세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극복한 개혁을 실천했던 왕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요시아와의 관계에서 므낫세의 죄는 요시아의 개혁의 서론적 배경으로 제시되며, 요시아의 개혁은 율법에 근거하여 므낫세의 모든 죄악을 극복한 행동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전후 문맥에서 볼 때 므낫세의 죄악(왕하 21장)은 그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개혁(왕하 18 - 20장)을 무효화하며, 그의 이후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개혁의 전조가 되는 서론적 기능을 한다(왕하 22 - 23장).<sup>20)</sup> 그러나 최종 형태의 신명기적 역사에 따르면 요시아의 개혁은 므낫세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므낫세의 죄악이 요시아의 개혁을 무효화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1)</sup> 왕하 23장 26-27절은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야웨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 야기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언급한다. 어떻게 므낫세의 죄악이 그 죄악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극복한 모습으로 행해졌던 요시아의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일까? 므낫세의 행악이 그의 직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개혁을 무효화하였고, 요시아의 개혁은 그의 앞선 왕인 므낫세의 죄악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흐름에서 논리적인데, 왜 신명기적 역사가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므낫세의 죄악이 이후에 이루어진 요시아의 개혁까지도 무효화한 것으로 제시할까?

20) Hobbs, 윗글, 304쪽.

21) 쿠렌(Keulen), 롱(Long), 그리고 오택현은 최종 형태의 신명기적 역사에서 므낫세의 죄악을 남유다의 선왕들(히스기야, 요시아)과 대조한 것은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두 왕들의 개혁을 무효화하는 기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주장한다. P. S. F. van Keulen, *Manasseh through the Eyes of the Deuteronomists: The Manasseh Account (2 Kings 21:1-18) & the Final Chapter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 E. J. Brill, 1996), 204-05쪽; Long, 윗글, 248-50쪽; 오택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므낫세,” 『신학과 목회』 31호 (2009), 76쪽. 반면에 박신배는 아하스-히스기야-므낫세라는 왕위 계승의 문맥에서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인물로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므낫세는 히스기야 개혁을 무효화한 왕이었지만, 신명기적 역사에서 그림자의 역할로서 히스기야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제 19집 (2005년 12월), 100-105쪽.

스위니(Sweeney)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유죄(culpability)와 무능함 또는 실패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sup>22)</sup> 스위니는 비록 신명기적 역사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야웨의 심판에 대한 백성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 유다의 멸망은 야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단순히 취소하신 사건이며,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남 유다의 심판이 한편으로는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약속 파기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행동(참조 사 6: 9-10)이라는 것이다. 즉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의 계획이 파기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스위니가 남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므낫세와 백성들의 책임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신명기적 역사에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그 죄는 여로보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북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어진 것으로 언급된다(왕상 15: 26, 34; 16: 19, 26; 22: 52 등). 이러한 왕들과 백성들의 지속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다(참조 왕하 17장). 반면에 남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되는데, 이러한 이해는 북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일관성이 결여된다. 게다가 남 유다의 멸망은 야웨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영속성까지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 약속은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졌고(삼하 7: 12-16), 그 이후에는 조건적으로 언급된다(참조 왕상 2: 4; 8: 24-26; 9: 4-5).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조건적, 즉 율법을 지키면 왕위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죄만으로 그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기사(왕하 21: 1-18)를 에워싸고 있는 히스기야(왕하 18 - 20장)와 요시아(왕하 22 - 23장)의 기사는 그들의 종교 개혁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을 가져왔듯이, 요시아의 개혁도 유다와 예루살렘

22) M. A. Sweeney, "King Manasseh of Judah and the Problem of Theodic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264-78쪽.

23) 윗글, 274쪽.

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신학적 일관성이 있다. 므낫세의 죄가 그의 이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개혁을 무효화 한 것이라면, 요시아의 개혁도 그의 이전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죄악을 무효화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종 형태의 신명기적 역사에서 요시아의 개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이키는 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 또는 하나님의 유죄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역사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실패 또는 무능함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명기적 역사는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강조한다(참조 삼상 2: 1-10).<sup>24)</sup>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할 때,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과 자유(freedom)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비록 신명기적 역사의 기본적 신학 사상이 야웨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만(참조 신 11: 22-32; 30: 15-20; 렘 18: 7-10 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학적인 틀에 반드시 종속될 필요가 없다(참조 사 55: 8). 오히려 하나님 자신은 이러한 신학적 사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스스로의 약속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신다.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는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다루는 전후 문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낸다. 인과응보의 신명기적 역사가의 기본 사상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기사는 그것의 전후 문맥에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과의 관계에서 남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 5.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신명기적 역사에서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기사(왕하 21: 1-18)가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와 남 유다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신학적 의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므낫세를 다루는 왕하 21장 1-18절은 신명기

24) '한나의 기도'의 기능과 그 메시지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 정 석규, "한나의 기도(삼상 2: 1-10)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 「한영논총」 제 12호 (2008), 11-36쪽.

적 역사의 전형적인 형식인 왕의 통치에 대한 서론(왕하 21: 1)과 그의 남은 사적과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결론적 언급(왕하 21: 17-18)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구조 안에 있는 므낫세의 통치의 핵심을 다루는 본문(왕하 21: 2-16)은 그것의 짜임새 속에서 본문의 의도를 드러낸다. 이 부분은 야웨의 심판 선언(왕하 21: 12-14)을 중심으로 하여 므낫세의 죄에 대한 묘사들이 겹겹이 에워 쌓인 형태로 짜여진다(왕하 21: 2-9[a], 11[b], 15[b'], 16[a']).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짜임새는 본문을 하나의 문학적 단락으로 응집할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죄로 인해 야웨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의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본문의 의도는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잘 나타난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왕하 21: 3, 13) 아합의 죄(왕상 16, 21장)와 사마리아의 멸망을 초래한 죄(왕하 17장)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므낫세의 죄(왕하 21장)와 병행된다. 이러한 병행들은 북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을 이 끌었던 동일한 죄악들을 범한 므낫세로 인하여 남 유다에도 야웨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즉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므낫세의 죄는 남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후의 남 유다의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는 다른 의도를 드러낸다. 므낫세의 죄는 그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개혁과 그의 이후의 대표적 왕이었던 요시아의 개혁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역 대응 속에서 므낫세의 죄는 그의 이전의 왕인 히스기야 개혁뿐만 아니라, 그의 이후의 왕인 요시아의 개혁까지도 무효화하는 기능을 한다(참조 왕하 23: 26-27). 비록 신명기적 역사에서 요시아의 개혁이 므낫세의 죄를 극복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왕하 23: 4-25), 요시아의 개혁이 므낫세의 죄를 무효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므낫세의 죄가 요시아의 개혁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역사가의 기본 신학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므낫세의 죄를 극복한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는 야웨의 주권과 자유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왕하 23: 26-27). 그러므로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기사는 그 전후의 남 유다 왕들과의 관계에

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결론적으로 므낫세의 죄에 대한 기사(왕하 21: 1-18)는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므낫세와 백성들)의 책임임을 보여주고, 남 유다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임을 보여주는 신학적 이중 의도를 드러낸다.

## 6. 참고문헌

- 김 태훈, “앗시리아 문서와 유다 왕 므낫세의 바벨론 이송,” 「신학과 사회」 17호 (2003), 9-44쪽.
- 박 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19집(2005년 12월), 95-113쪽.
- 오 태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므낫세,” 「신학과 목회」 31호(2009), 63-76쪽.
- 이 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년 9월), 67-86쪽.
- 정 석규, “한나의 기도(삼상 2:1-10)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 「한영논총」 제12호(2008), 11-36쪽.
- \_\_\_\_\_, 「구조로 읽는 구약성서: 구조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 정 중호, “므낫세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호 (1999), 213-33쪽.
-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열왕기하 16-23장 주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 Ahlström, G. W., *Roy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Religion in Ancient Palestine*, (Leiden: E. J. Brill, 1982).
- Cogan, M.,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SBLMS 19),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4).
- Cohn, Robert L.,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Cross, F. M.,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der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74-89쪽.
- Friedman, R. E., *The Exile and Biblical Narrative: The Formation of the Deuteronomistic and Priestly Works* (HSM 22),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1).
- Gray, J., *I & II Kings* (OTL), (London: SCM Press, 1977).

- Hobbs, T. R., *2 Kings* (WBC 13), (Waco, Texas: Word Books, 1985).
- Keulen, P. S. F. van, *Manasseh through the Eyes of the Deuteronomists: The Manasseh Account (2 Kings 21:1-18) & the Final Chapter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 E. J. Brill, 1996).
- Knauf, E. A., "The Glorious Days of Manasseh," L.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164-88쪽.
- Long, B. O., *2 Kings* (FOTL 10),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1991).
- McKay, J. W.,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SBT 26), (London: SCM Press, 1973).
- McKenzie, St. L., *The Trouble with Kings: The Composition of the Books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Sup 42), (Leiden: E. J. Brill, 1991).
- Mendenhall, G. E., "Amorite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199-202쪽.
- Nelson, R. D.,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1943).
- O'Brien, M. A.,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Olyan, S. M., *Asherah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 (SBLM 34),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Provan, I., *Hezekiah in the book of Kings* (BZAW 172), (Berlin: de Gruyter, 1988).
- Schniedewind, W. M., "History and Interpretation: The Religion of Ahab and Manasseh in the Book of Kings," *CBQ* 55 (1993), 649-61쪽.
- Spieckermann, H.,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Stavrakopoulou, F., "The Blackballing of Manasseh." Lester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248-63쪽.
- Sweeney, M. A.,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King Manasseh of Judah and the Problem of Theodic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 L. Grabbe(ed.), *Good Kings and Bad*

*Kings*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3),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264-78쪽.  
Taylor, J. G.,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JSOTS 111), (Sheffield: JSOT  
Press, 1993).

검색어  
왕하 21장  
므낫세 왕  
신명기적 역사  
남 유다의 멸망  
구조분석 방법

투고일: 2010년 3월 20일  
심사일: 2010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52 정 석규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

## Dual Functions of Manasseh's Sin (2 Kings 21: 1-18)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

**Seokgyu Ju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is an exegetical paper on the final form of 2 Kings 21: 1-18. This paper attempts to expose the freedom of YHWH in punishing against His people as well as the 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YHWH based upon Manasseh's sins as the double theological intentions of the final form of 2 Kings 21: 1-18. In order to disclose the intentions of the text, this paper examines the final form of the text by a synchronic approach rather than a diachronic approach.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and texture of the final form of the texts. The extant form of 2 Kings 21: 1-18 is portrayed in the rhetorical scheme of *inclusio* of the typical regnal introduction(21: 1) and the concluding regnal resume(21: 17-18). In this outer framework, the main block concerning the reign of Manasseh(21: 2-16) is described in terms of a five-part concentric design as follows:

- a. Explanation of Manasseh's sins(21: 2-9)
- b. Cause for YHWH's punishment(21: 11)

- c. YHWH's announcement of punishment(21: 12-14)
- b'. Cause for YHWH's punishment(21: 15)
- a'. Explanation of Manasseh's additional sins(21: 16).

This concentric structure shows theological function of Manasseh's sins as the cause for YHWH's punishment against Judah as well as the final form of 2 Kings 21: 1-18 as a legitimate unified literary unit.

Second, this paper show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YHWH's punishments against Samaria and against Judah by comparing the sins of Manasseh with those of Ahab and Samaria. This relationship shows that the reference of Manasseh's sins is intended to reveal 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YHWH.

Third, this paper tries to expose another function of the final form of the text by comparing Manasseh's sins with the reforms of Hezekiah and Josiah. In relation to the reforms of King Hezekiah and King Josiah of Judah, Manasseh's sins depicted in the final text of 2 Kings 21: 1-18 are intended to show YHWH's sovereignty or the freedom of God in destroying Jerusalem and Judah and renegeing the eternal promise to the house of David(cf. 2 Sam 7: 12-16). The reason why Manasseh's sins, which nullify the reform of the former king Hezekiah(2 Kings 18-20), cannot be nullified by the righteous reform of the latter king Josiah(2 Kings 22-23) is that YHWH freely made the decision to punish against Jerusalem. Therefore, the narrative of Manasseh's sins in 2 Kings 21: 1-18 functions to expose the freedom of God in punishing against His people as well as 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destruction of Judah by YHWH.

#### **Keywords**

2 Kings 21  
King Manasseh  
Deuteronomistic History  
Fall of Judah  
Structural Analysis